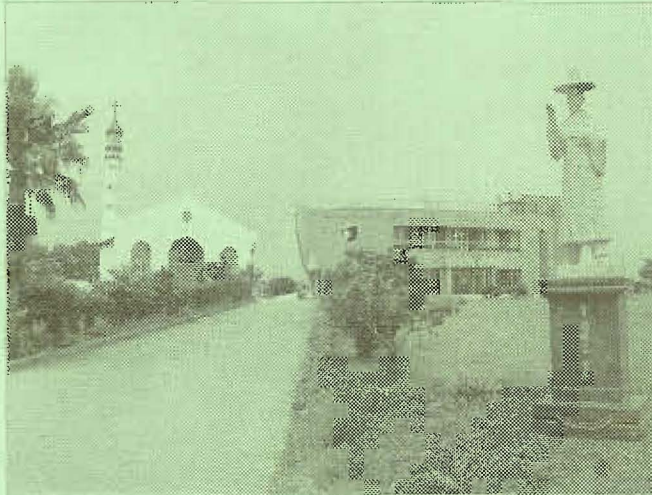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경축이동
제32권 32호(나해) 2012:7:8

[묵상]



성지 용수- 김대건 신부 제주 표착지 <제주시 용수리 소재>

주님,
제가 당신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거스르게 되고,
제가 당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때,
끝까지 견디게 하소서.

당신을 고발하고 배척하는 이들과
관계를 그르칠까봐
외면하고 침묵하기보다는

주님,
당신에 대하여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하소서.

당신께서 직접 일러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하시나,
제가 고민함은
제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시간이오니,
끝까지 견디는 이가 받을
구원을 위한 고민이게 하소서.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미사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성경공부(그룹반)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제주)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제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제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3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제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제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제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제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파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특전미사	(생) 김병조 마틴 & 박지연 요안나 가정, 강필성 바오로, 이경훈 마틴 가정, 정진세 사이먼, 김관기 라파엘 & 김명재 아가다 가정
주 일	(연) 이경용 야고보, 김동길 바오로, 박영춘 안토니오, 이준택, 이태숙 카타리나, 홍철평, 고준희 제임스, 송윤재 테레사, 이달자 마리아 & 김인주 미카엘, 이흥주 요한, 김영자
낮 미사	(생) 이윤조 클라라, 유철희 바오로, 신대철 알베르토, 임준자, 유재형 요셉, 최등미자 벨라멧다, 김종훈 마태오, 김호인 벨라멧다 & 주용순 모니카, 장성준 베드로 가정, 이근모 마리오, 오세원 아타나시오 & 루시아의 자녀들, 박혜경 레나타 & 박진주 스테파노 가정, 제25회남가주성령채신대회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역대기 하권(2 Chronicles) 24,18-22

화답송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채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채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오로지 주님만 믿나이다.
당신 자애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당신 앞 피신처에 그들을 감추시어,
사람들의 음모에서 구해 내소서.○

제 2독서 로마서(Romans) 5,1-5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 음 마태오(Matthew) 10,17-22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33-42
입당	108	108	108
봉헌	268	259	269
성체	284	106	300
파견	343	343	343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1부 하느님의 말씀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 1,1.14)

교회 안의 성경 해석학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성경

실상 바오로 성인은 유대인들이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조상들 덕분에 여전히 하느님께 사랑을 받는 이들입니다.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로마 11,28-29)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오로 성인은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묘사하기 위하여 올리브 나무라는 아름다운 표상을 사용합니다. 이방인들의 교회는 계약의 백성이라는 좋은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야생 포도나무 순과 같습니다.(로마 11,17-24 참조)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같은 영적인 뿌리에서 양분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들로서, 역사의 어떤 순간들에는 긴장된 관계를 가졌었지만 이제는 항구한 우정의 다리를 놓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형제들로서 서로를 만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많은 것을 공통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더 형제적이고 더 인간적인 세상을 위하여 함께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유대인들과의 대화가 열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서로를 더 잘 알고 존중하고 동일한 성경에 대한 연구에서도 서로 협력하기 위하여 공적인 만남과 토론의 기회도 마련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성경의 근본주의적 해석

44). 지금까지 성경 해석학의 여러 측면들을 살펴보았던 것은 우리에게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의 토론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던 성경의 근본주의적 해석이라는 태도에 대해 논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교황청 성서위원회는 그 문서「교회 안의 성경 해석」에서 중요한 지적들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특별히, 거룩한 본문의 진정한 본성을 존중하지 않고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들을 만들어내는 해석들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실상, 근본주의 해석에서 주장하는 “축자주의”는 자구적 의미와 영성적 의미를 모두 배반하고 여러 가지 성경의 도구화를 가능하게 하며, 예를 들어 성경 자체의 반교회적인 해석을 전파시킵니다. “근본주의 해석의 근본 문제는 성경 계시의 역사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강생의 진리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하느님과 맺는 관계에서도, 근본주의는 신적인 면과 인간적인 면의 긴밀한 관계를 다 회피하려고 한다. (……) <◆계속>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편지

오늘 우리는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모든 성직자를 위해 신부님의 전구를 구합니다. 성 김대건 신부님께서 1821년 솔피에서 태어나 16살에 모방 신부님의 추천을 받아 사제가 되기 위해 마카오로 떠나십니다. 약 10년 후 사제 서품을 받고 1년 1개월 동안의 사제 생활 후에 새남터에서 순교하십니다. 신부님의 옥중서한을 살펴보면 40여 차례의 고문들 속에서도 오히려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우들을 걱정하며 더욱 굳건해지도록 마음을 쓰시는 목자로서의 신부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강론을 통해 신부님의 편지에 드러난 그분의 마음을 살펴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누어 보려 합니다.

먼저 신부님께서 비유를 통해 교우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마치 곡식을 온갖 노력을 기울여 심고 가꾸는 농부와 같이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이라는 땅에서 우리를 심고 가꾸셨으니, 수확 때에 잘 영근 벼가 되어 그분의 사랑에 보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영근 벼가 된다는 것은 박해라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또한 신부님께서 어려움 중에서도 굳건히 성장해 온 교회의 역사를 들어 예수님께서 언제나 교회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교우들에게 심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성교회를 어려움 중에서도 성장하도록 보살피 주셨으니, 한국 교회도 친히 작은 틈길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보살피 주실 것입니다.

박해 중에서도 오직 하느님만을 신뢰하며 하느님의 보살핌에 한국 교회를 맡기는 신부님의 강인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근본 원리를 물질에서 찾는 물질주의와 그 물질을 소비함으로써 존재적 갈등을 풀려는 소비주의의 큰 물결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소명에 응답하며 살아갑니다. 사회매체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수없이 많은 메시지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소명에도 응답해야 합니다. 즉, '소비하면 행복해진다'는 메시지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또 자신을 내어주면 행복하다'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박해라는 어려움은 아니지만, 이런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는 한국 교회가 하느님의 보살핌을 신뢰하며 이 도전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영성을 배워 나갑시다.

◆윤기성 미카엘 신부 /
부산교구 길천성당 주임

10분

남의 말 않고 10분을 보내본 적 있었나
거짓없이 10분을 견뎌본 적 있었나
후회없이 10분을 살아본 적 있었나
잡념없이 10분동안 기도한 적 있었나
밥 한그릇 먹기에도 모자란 겨우 그 10분이
내 소리를 죽이고 마음을 비우기엔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영 아녜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박희자 마리아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김태형 가브리엘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은지 수산나	이순자 비비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3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김은지 릴리안	신덕례 데레사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임정빈 보스코	권오상 바오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권순길 체칠리아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P.V. 3반

7월

한국인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은 1821년 충남 솔피에서 태어나 1845년 중국 상하이 금가항 성당에서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고국에 돌아온 그분은 선교사제를 영입하려다 체포되어 1846년 9월16일 한강 새남터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우리도 한국 교회의 초석이 되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굳은 신앙과 불굴의 용기를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 매일미사 중에서 -

한국의방선교회본부의 총장·사무처장·후원국장 신부님과 본부후원회장단·미주각지역 후원회장단 20여명이 본당을 방문, '감사 후원의 밤'을 열고 교우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Movie Night** : 7월14일 청년미사(토요특전) 후, 강당
 * '을지마 톤즈' 상영
 * 회비: \$7(저녁식사 및 음료 제공합니다.)
 ● 문의 : 최태훈 아오스딩 청년회장 ☎(310)508-2123

본당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는 2012~2013 새 회기를 맞아 각 신심단체 활성화 및 회원 가입 확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단체에 속해 있지 않은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참여하여 본당 발전에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는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하는 사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 일시 : 7월20일(금) 오후 7시 성당
- 참석대상 : 남가주 각성당 샌디에고 고등부 신앙대회(7월 27일~29일)참가자 및 관심있는 주일학교 학생들, 뿐만아니라 청년들과 어르신 신자들께서도 많이 참석하여 격려해 주십시오.
- 문의 : 박윤희 스테파니아 행사코디 ☎(310)613-9116

- 주제 :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 일시 : 7월27일(금)~29일(주일)
- 장소 : 엘카미노 칼리지 강당(16007 Crenshaw Bl.)
- 강사 : 김세을 신부, 백운철 신부, 정현철 신부,
조영희 신부, 한상만 신부
- 참가티켓 : \$25(본당 사무실에서 구입시 \$20)
- 문의 : ☎(213)435-7570
- 주관 : 남가주성령쇄신봉사회(봉사회 회장 김충섭 마틴)
- 후원 : 남가주사제협, 남가주평신도협
가톨릭신문, 평화신문

- 7월8일(주일) : 토렌스 남1반(제육볶음백반 \$3)
- 7월15일(주일) : 하며/카순 1,2반
(터키랩 Turkey Wrap \$3)

- 4 -

주일학교/한국학교 소식

한국학교 2012/2013학년도 등록

- 등록시간 : 주일학생미사 · 11시미사 전후
- * 등록금 : 첫째 \$160, 둘째 \$150, 셋째 \$140, 넷째 무료
- * 대상 K~12학년, SAT II

여름방학 SAT 한국어 특별반 모집

- * ① SAT 기초 준비반 ② SAT 집중문제 풀이반
- * 수업시작 : 7월1일(주일)부터 학생미사후 8주간 계속
- * 등록금 : 새학기 등록자 무료

교사 모집 : 대상 - 보조교사

- 컴퓨터 기증받습니다 : 새학기를 준비하면서 보다 더 원활한 한국학교 수업과 행정업무를 위해 관심있는 단체나 개인의 도움을 절실히 기다립니다.

문의 : 김화경 스텔라 한국학교교장 ☎(310)464-7490

어린이 복사단 모집

- 봉사일시 : 주중 수,목요일 미사(오후 7시30분)
- 자격 : 첫영성체한 초등부 남녀 어린이
- 문의 : 황선흥 그레고리오 ☎(424)903-6637

학생미사(주일 오전 9시30분)에 빠지지 맙시다.

- 주일학교와 한국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갔습니다. 방학중에도 주일 학생미사는 그대로 봉헌되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소식

가톨릭 예수회 성경대학 제3학기 과정

- 일시 : 7월13일(금)~15일(주일) 오후 6시50분-10시
- 주제 : 사도시대 초대교회의 삶과 영성
- 강사 : 송봉모 토마스 신부(예수회)
- 장소 : LA 성 아그네스 한인성당(2625 S. Vermont Av.)
- 수강료 : \$50(1일 \$20)
- 등록문의 및 접수 : 김크리스티나 ☎(323)896-7525

최대제 신부(성아그네스성당 주임)의 커피 강의

- 일시 : 7월9일(월) 낮1시, 7월12일(목) 오후 6시30분
- 장소 : LA 성 아그네스 한인성당
- 수강료 : \$50(각반 15명 씩)
- 신청 : 아그네스 성당 사무실 ☎(323)731-4433

성 이나시오 19번 영신수련 피정자 모집

- 일상의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느님을 체험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삶으로의 초대.
- 기간 : 2012년 9월~2013년 6월
- 회비 : \$700(도네이션으로 봉헌됩니다.)
- 주관 : 로올라 영성센터(오렌지카운티)
- 문의 : 전아네스 ☎(213)507-1144, 최아우렐리아 ☎(562)233-7163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김옥찬 수산나 562-628-1955 7/14(토)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야외반모임(Torrance Park) 7/21(토) 낮 12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7/18(수) 오후 8시 성당
토런스 서 장정진 베토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김교복 레오 328-1827 7/14(토) 오후 6시
	2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이형삼 요셉 375-7397 7/14(토) 오후 6시 차이나부페
	3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7/22(주일) 낮미사후 성당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오창애 안나 974-2857	최기남 야고보 378-4183 7/17(화) 오후 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미경 스테파니아 634-6923 7/19(목) 오후 8시30분 성당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7/14(토) 오후 6시 성당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야유희회(P.V. Park) 7/15(주일) 오전 10시30분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이정자 아그네스 953-7903	1/2	주영애 켈마 818-640-3656	김금자 데레사 800-3939 7/14(토) 오후 6시 성당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도 384-3289	남성철 베네딕도 377-6659 7/10(화) 오후 7시 반미사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P.V. 2,3,4반 합동 반모임 7/14(토) 오전 10시 라이언팍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P.V. 2,3,4반 합동 반모임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P.V. 2,3,4반 합동 반모임

이번 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의날	
----------	--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	-------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62년 전이었던 1950년 7월, 우리 가족은 '출애굽'을 단행하였습니다. '모세'였던 엄마의 지휘 하에 큰 누이를 비롯한 여섯 가족은 숨어 지내고 있던 아버지를 찾아서 청계산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다섯 살의 어린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떠난 출애굽처럼 불과 며칠 동안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40년의 고난과 맞먹을 수 있는 그 숨 막히는 탈출과정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룻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 건넌 것은 흥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은 아니었지만, 다리가 끊어진 상황에서 마흔 살 초반의 엄마가 스무 살의 다 큰 처녀에서부터 이제 겨우 두 살의 젖먹이까지 거느리고 나룻배를 구해 도강에 성공한 것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팔을 펼쳐 물을 가르' 모세의 기적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강을 건너자 짐을 실은 수레바퀴는 모래사장에 빠져서 움푹달싹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섯 살의 저까지 수레에 달라붙어 온 가족이 비 오는 모래밭을 간신히 벗어나자 곧 어둠이 내렸습니다. 피난 가고 없는 빈집에서 엄마는 우리를 위해 밥을 짓고 모기장을 쳤습니다. 하룻밤 잔 곳은 누에를 기르던 양잠실이었는데, 사망에 누에가 죽어있어 싸락눈이 내린듯 하였고, 비릿한 냄새가 났습니다. 밤새도록 썩썩이 소리가 나고 멀고 가까운 곳에서 쿠앙쿠앙 폭음소리가 나고 저는 내일이면 아빠를 만날 수 있다는 기쁨에 켄터키 옛집의 검둥이처럼 마루를 구르며 세상모르고 잤습니다.

다음날 일찍 아버지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아아, 무덥던 긴 여름날, 햇살은 눈부셨고 길은 가도 가도 끝없이 옥양목의 빨래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더위를 먹어 배는 남산만큼 튀어나왔고 더리에는 현대가 나서 건널 수 없이 아팠지만 저는 뒹뒹뒹 오뎅이처럼 걸었습니다. 한 고개를 넘으면 엄마가 말했습니다. "지 고개만 넘으면 아버지가 있다." 이 말 한마디면 다섯 살의 어린이였지만 저는 벌떡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빠를 만날 수 있는데 더위쯤 대수랴. 물렸기라, 대갈장군(어릴 적의 제 별명입니다.) 나가신다. 휘이휘이 물렸기라. 골목대장 나가신다.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범조인의 신분을 숨기고 전란을 피해 미리 피난 와 수염을 기르고 털실모자를 쓴 농군 모습의 아빠가 성황당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미친 듯이 뛰어나와 맞아주던 모습을. 저를 행가래 쳐서 하늘에 번쩍 들어 올렸다가 부둥켜안던 그 우주와 같은 품속을. 그렇게 우리 가족의 출애굽은 끝이 났고 그해 여름 한철을 청계산 계곡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

습니다. 요즈음 저의 화두는 바로 이 다섯 살 때의 기억입니다. 저는 그때 아빠를 만날 수 있다는 기쁨 하나로 무더위와 부스럼의 고통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공포도 없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고개 하나 넘으면 아빠가 있다는 말 한마디만이 생명이요, 힘이요, 구원이었습니다. 저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고갯길 저 너머에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저보다 더 저를 사랑하시는 영혼의 하느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일곱의 어른인 저는 다섯 살의 어릴 때보다 더 큰 두려움과 고통과 불안과 미혹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생각을 바꾸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일곱의 저는 훨씬 지혜롭고 똑똑했었을지는 모르지만 다섯 살의 철부지였던 그때의 저보다 아버지께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워즈워스의 시 "무지개"처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오니 주님, 저를 다시 한 번 물과 성령으로 단순하고 순진한 '어린이와 같은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최인호 베드로 / 작가(서울대교구 주보)

☛ 교무금과 간절적으로 내는 건축기금과 특별봉헌금 등을 모두 합산해서 수입의 십분의일이 되면 십일조가 됩니까? 십일조를 못하는 처지를 스스로 위로하고 심습니다.

십일조인 교무금은 신앙인의 의무입니다. 성경이 밝히는 원칙에 따라 바쳐야 옳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십일조와 별도로 가난한 이를 돕기 위한 자선헌금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예물을 바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해서 속죄예물과 서원예물 등도 함께 바칠 것을 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봉헌금의 액수를 더하고 보태서 합산하는 일은 인간적 계산입니다. 봉헌은 "모든 것은 당신에게서 오기에, 저희가 당신 손에서 받아 당신께 바쳤을 따름입니다"(1역대 29, 16)라는 믿음의 고백 행위입니다. 때문에 모든 봉헌행위가 생색을 낼 수 없으며 자기 만족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액수를 억지로 껴맞추려고 이리 보태고 저리더하여 '합산'을 하다니, 천부당만부당합니다. 이야말로 봉헌의 본 뜻을 잃고 '홍정'을 하려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의 심정이 어떨지, 고민하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십일조를 봉헌할 수 있도록 철저한 믿음을 간청하는 편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모든 봉헌행위에는 "언제나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가져 온갖선행을 넘치도록 할 수 있게"(2코린 9, 8) 해 주실 것이라는 그분의 자비로운 약속이 불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힘을 내기 바랍니다.

◆장재봉 신부(부산교구 활천성당 주임)